



Emerging

City

Major cities in
Midwest China

Major cities in Midwest China

박진희 연구원 jhpak@kiep.go.kr, 오종혁 전문연구원 ojh@kiep.go.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

- ▶ 정저우, 우한, 시안, 충칭은 개혁개방 이후 먼저 개발이 추진된 동부 연해 지역에 비해 발전이 뒤쳐진 중서부 내륙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개발전략 '중부 굴기(中部崛起)', '서부대개발(西部大開發)'의 핵심도시
- ▶ 상하이, 광저우 등 동부 연해 지역 도시들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아직 낮은 편이나, 10%를 넘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(2010~2014)로 중서부 내륙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이자 중국 내륙 물류의 거점

정저우(鄭州)

- 허난(河南)성의 성도, 중부지역 철도교통 허브
- 면적 : 7,446km²
- 인구 : 938만 명(2014)
- 지역총생산량(GRDP) : 6,783억 위안(2014)
- 1인당 지역총생산량 : 73,056위안(2014)
- 자매도시 : 경상남도 진주시

우한(武漢)

- 후베이(湖北)성의 성도, 창강 중류 수운 거점
- 면적 : 8,494.4km²
- 인구 : 1,034만 명(2014)
- 지역총생산량(GRDP) : 10,070억 위안(2014)
- 1인당 지역총생산량 : 97,403위안(2014)
- 자매도시 : 충청북도 청주시

시안(西安)

- 산시(陝西)성의 성도, 중국 서북부 지역 중심 도시
- 면적 : 1만 108km²
- 인구 : 862만 명(2014)
- 지역총생산량(GRDP) : 5,474억 위안(2014)
- 1인당 지역총생산량 : 5만 6,988위안(2013)
- 자매도시 : 경상북도 경주시

충칭(重慶)

-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, 서부대개발 중심 도시로 내륙 교통 허브
- 면적 : 8만 2,400km²
- 인구 : 2,991만 명(2014)
- 지역총생산량(GRDP) : 1조 4,265억 위안(2014)
- 1인당 지역총생산량 : 4만 7,859위안(2014)
- 자매도시 : 인천광역시



1. 정저우(鄭州)

기본 현황

- 중국 중부지역 철도 교통의 요충지
 - 중국의 핵심 철도인 징광철도(京廣·베이징-광저우를 남북으로 잇는 철도)와 룡하이철도(隴海·롄윈강과 란저우를 동서로 잇는 철도)가 정저우를 교차함
 - 정저우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, 폴란드를 거쳐 독일 함부르크까지 운행되는 국제 화물열차가 2013년에 개통되어, 매주 2회 운행되고 있음

- 중화문명의 발상지이자 중원(中原)의 중심지
 - 황허(黃河) 남단에 있는 정저우는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(黃帝)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졌으며, 상(商)나라 때 도읍으로 지정되어 도시 중심부에 당시 지어진 성벽이 남아 있음
 - ‘소림권법’으로 유명한 소림사는 496년 지어졌으며 당(唐)나라 대표 시인 두보와 백거이가 태어난 곳임

- 6개의 구(區), 5개의 현급시(縣級市), 1개의 현(縣)으로 구성
 - 도시 중심부의 중위안·진수이구가 가장 인구가 많고 발달된 지역임. 특히 허난성 정부기관이 위치한 진수이구가 가장 변화한 곳으로, ‘정동신구(鄭東新區)’라는 신도시가 2003년부터 조성되며 더욱 발전
 - 서편은 구릉지대로, 이 중 싱양시와 덩핑시에는 석탄 산지가 있어 광산업이 발전했고, 상제구는 알루미늄 산지가 있어 알루미늄 가공업이 발전

그림1 정저우시 행정구역 및 진수이구에 위치한 신도시(정동신구)의 풍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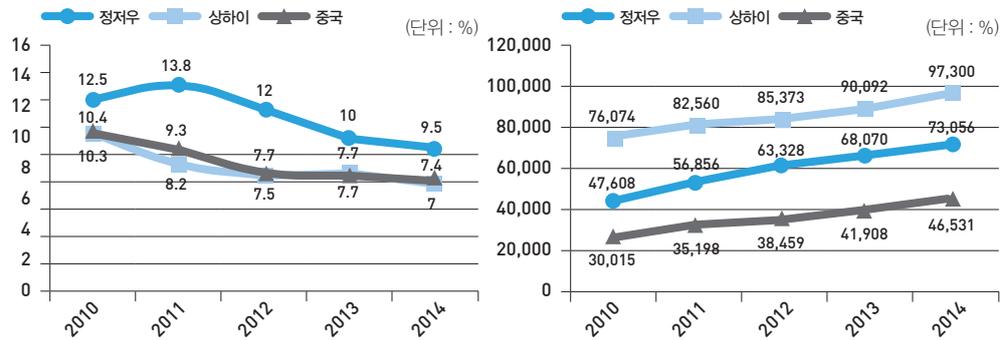
자료 : 지도는 위키피디아 그림파일(<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Zhengzhou>)을 수정; 사진은 저자 직접 촬영

1 1940년대까지는 판관 포청천으로 유명한 ‘카이펑(開封)’이 허난성의 중심지였으나, 1950년대 이 두 철도가 정저우를 교차하게 건설됨에 따라 정저우가 허난성의 중심지가 됨
 2 허난성을 중심으로 산둥(山東)성 서부, 산시(陝西)성 동부 등을 포함하는 황허 중하류 일대를 일컫는 말로, 중국 한족의 본거지였음

경제 현황

- 최근 10%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으며, 1인당 GRDP는 상하이에 아직 많이 못 미치는 편
 -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둔화 분위기에 따라 2014년 경제성장률이 9.5%를 기록했으나, 2013년까지는 10%를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
 - 2014년 1인당 GRDP는 73,056위안으로 연해지역 대도시인 상하이의 75% 수준

그림2 정저우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RDP(2010~2014)



자료 : 각 지역의 통계연감·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(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)

- 식품가공업, 자동차·장비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 폭스콘의 이전에 힘입어 전자정보 산업이 발전 중
 - 중국 최대 곡물 생산지인 허난성의 성도로서, 냉동식품, 인스턴트식품 가공 산업이 발전
 - 대표 식품회사 '싼취안(三全)':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쑹즈(粽子·참쌀을 대나무잎 등의 잎으로 감싸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), 탕위안(湯圓·참쌀가루를 새알모양으로 빚은 것)과 같은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중국 유명 식품기업
 - 버스, 승용차, 픽업트럭 중심의 자동차 제조업, 탄광기계, 방직기계 중심의 장비제조업이 발전
 - 대표 자동차회사 '정저우위통(宇通)': 아시아 최대 버스제조업체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버스 10대 중 4대는 위통의 제품
 - 대만계 기업 폭스콘이 2010년 정저우에 공장을 세우면서 전자정보 산업이 급속히 발전
- 홍콩, 대만으로부터 투자가 많으며, 데니스, 홍콩·상하이은행, UPS 등이 진출
 - 2013년 기준 홍콩으로부터의 투자가 80% 이상으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대만의 투자가 11% 정도로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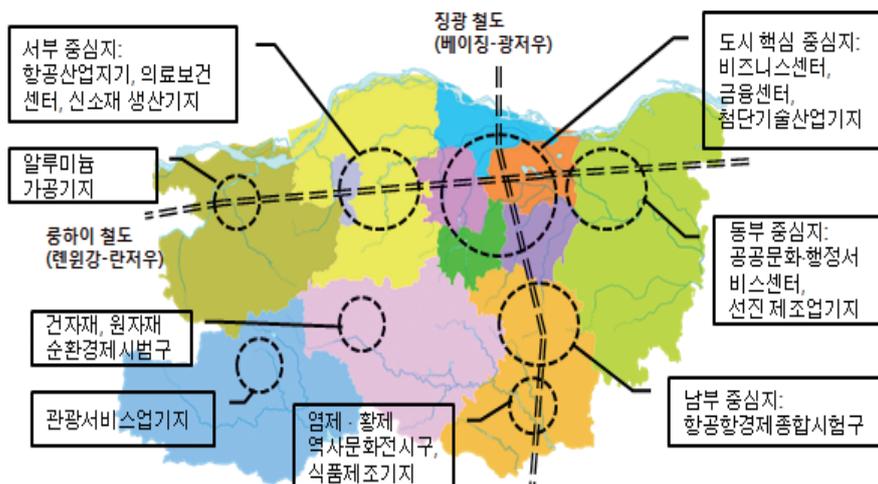
3 대만 훙하이(鴻海) 정밀공업의 자회사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탁 제조

- 대만 유통회사인 데니스(Dennis) 백화점과 코카콜라가 1990년대 중반에 일찍이 진출하였으며, 최근에는 홍콩의 홍콩·상하이은행(Hongkong & Shanghai Banking Corp),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및 UPS, DHL 등의 물류기업이 진출 중

도시 발전 계획

- 1개의 핵심 중심지와 3개의 지역 중심지를 구성하고, 지역 특색에 맞춰 4개의 기지를 조성할 예정
 - 징광철도와 룡하이철도의 교차 지점에 비즈니스와 금융서비스업이 발달한 핵심 중심지를 조성
 - 핵심 중심지 동, 서, 남측에 철도 노선을 따라 각각 지역 중심지를 조성
 - 소림사가 있는 곳에 관광서비스업 기지를, 알루미늄 산지가 있는 서편에 알루미늄 가공기지과 전자재·원자재 가공기지를, 대추 등의 농산품이 많이 생산되는 남쪽에 식품생산기지를 조성
- 특히 공항이 위치한 남부 중심지를 ‘항공항경제종합시험구’로 조성해 정저우시를 종합 교통·물류 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
 - 징광철도와 룡하이철도가 교차 지점으로서 육상 교통망이 편리한 상황에서, 항공 교통망을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내륙지역의 대표 종합 교통·물류 허브가 되고자 함
 - 이를 위해 공항 및 주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공노선을 확대하며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있음
 - 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을 확대하고, 항공물류단지를 건설
 - 글로벌 환승 거점이 되고자, 앵커리지, 시카고, 두바이 등 세계 주요 항공물류 거점과 항공노선을 개통
 - 항공물류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제조 중심의 전자정보산업, e-무역 등의 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예정

그림3 정저우시 도시발전 계획도



자료 : 정저우시, 2014. 정저우 도시구 총체규획 2012-2030(鄭州市都市區總體規劃 2012-2030)

한국과의 교류 현황

- 정저우시 거주 교민은 60명 정도로 적은 편이며 CJ사료, 롯데칠성, 뚜레주르 등의 한국 기업이 소수 진출
 - 한국 교민은 대부분 유학생이 많으며 최근 정저우가 발전함에 따라 비즈니스맨의 단기 방문이 늘고 있음
 - 2004년 진출한 CJ사료는 허난성의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를 판매하고 있으며, 뚜레주르가 2013년 점포를 여는 등 최근에는 요식업체의 진출이 많은 편임

- 정저우의 유럽행 국제 화물열차가 개통됨에 따라, 일부 한국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국내 화물을 정저우를 거쳐 유럽으로 운송하기 시작
 - 삼성은 2014년 전자제품을 한국과 인접한 련윈강(連雲港)까지 해운으로 운송한 후, 철도로 정저우에 보낸 후 국제 화물열차를 이용해 유럽까지 운송
 - 정저우 發 국제 화물열차를 이용하면 한국의 화물을 유럽까지 20일 만에 운송할 수 있어, 인도양을 지나는 해운에 비해 운송시간을 줄일 수 있음

2. 우한(武漢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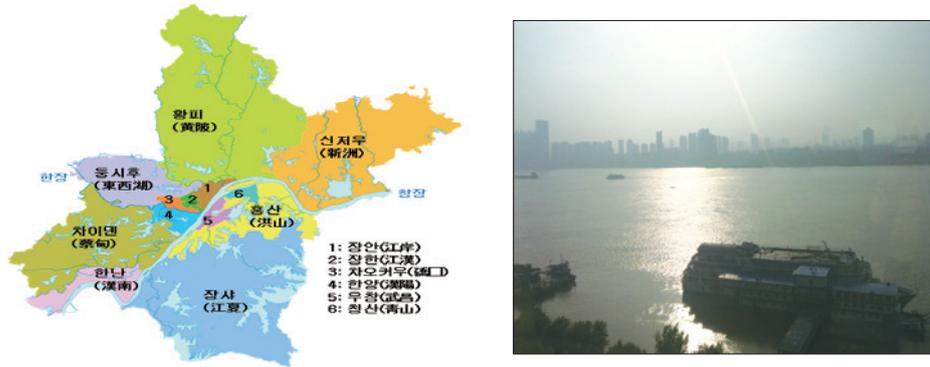
기본 현황

- 창강(長江) 중류의 핵심 도시이자 '백호(百湖·백 개의 호수)'의 도시
 - 칭하이성 고원지대에서 발원해 상하이까지 중국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창강의 중류 지역에 서 가장 발전한 도시로, 창강이 도시의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
 - 창강 수운과 징광철도의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비
 - 창강 지류에서 생겨난 호수가 166개 정도 분포해 있어 경치가 아름답고 수산물이 풍부

- 초(楚)나라 문화의 발상지이며 내륙지역 중 가장 일찍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개항지
 -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의 중심지로 당시 사용했던 청동기 유물이 많이 남아있으며, 초나라 대표시인 굴원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음
 - 창강 수운으로 인해 청 말 항구가 발달했던 지역으로, 1858년 텐진조약에 의해 개항되고 영국·독일·러시아·프랑스·일본의 조계지가 들어섬
 - 조계지 설립 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20세기 초, 상하이 다음가는 상업·무역 중심지로 발전해 '동방의 시카고'라 불림

- 행정구역은 13개 구(區)로 구성되어 있으며, 창강과 한강(漢江 : 창강의 지류)이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발전
 -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6개 구(장안구, 장한구, 차오커우구, 한양구, 우창구, 칭산구)가 도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 전체 인구의 50% 이상이 거주

그림4 한의 행정구역(13개 구) 및 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창강의 아침 풍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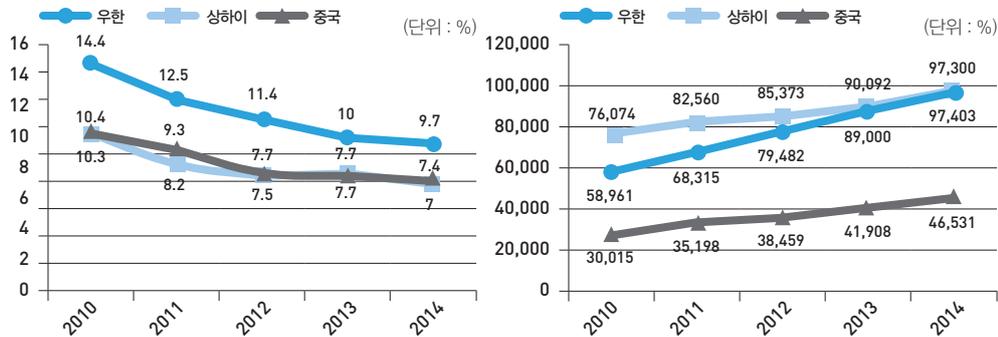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지도는 위키미디어 그림파일(<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Wuhan>)을 수정; 사진은 저자 직접 촬영.

경제 현황

- 10%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가 급속 증가
 -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기는 하나 2014년에도 중국 평균을 웃도는 9.7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
 - 최근 1인당 GRDP가 급격히 증가해, 중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인 상하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중국 전체 평균치의 두 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

그림5 우한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RDP(2010~2014)



자료 : 각 지역의 통계연감; 국민경제와사회발전통계공보(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)

- 자동차, 철강, 전자정보,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
 - ‘동풍(東風)자동차’를 중심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발전
 - 중국 3대 자동차회사 중 하나인 동풍자동차는 우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, 일본의 닛산, 프랑스의 푸조와 협력해 승용차, 중형 트럭, 버스 등을 생산
 -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에 노력
 - 중국 5대 철강회사 중 하나인 ‘우한강철’을 중심으로 열연강판, 냉연강판, 중후판 등을 생산

- 시 동편에 광(光)통신 제품 R&D 기관, 광섬유·광케이블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광밸리가 조성되어 전자정보산업이 발전

- 일본의 닛산·혼다, 대만의 통이(統一) 식품 등 4천여 개의 외자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외국 요식업체 진출이 활발
 - 이전에는 외자 투자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나, 최근에는 과학 R&D, 임대·비즈니스, 도매업 등 서비스 분야에 많이 투자되고 있으며, 스타벅스와 같은 외국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진출이 많음

도시 발전 계획

- 도심 주변에 4개의 산업단지(자동차·광전자·공항·항만)를 조성
 - 자동차 산업단지: 동평, 닛산이 있는 서남쪽에 자동차 부품회사 및 R&D기구를 집적해 연간 완성차 생산량이 300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 생산기지로 조성
 - 광전자 산업단지: 광밸리를 중심으로 광전자 및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
 - 공항 산업단지: 톈허(天河)국제공항 부근에 물류단지를 구축해 항공 물류산업 발전
 - 항만 산업단지: 후베이성 핵심 항만인 양뤄(陽邏)항 시설을 확충하고 항구 부근에 항만물류, 보세가공, 중화학공업, 중장비제조업 육성
- 특히 창강 중상류지역의 대표 항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양뤄항 개발에 노력
 - 중서부 내륙지역이 발전하면서 중서부·연해 지역 간 화물 운송량이 증가하였고, 이에 창강 수로의 운송 환경 개선에 관심
 - 이에 따라 양뤄항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을 1,000만 TEU로 증가시키고, 한국, 싱가포르와 같은 인근 국가까지도 직행으로 연결되는 수운 노선을 구축해, 우한시를 창강 중상류 지역 대표 항운센터로 조성하고자 함
 - 또한 창강 수운과 도로·철도·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해 중부지역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함

그림6 우한의 도시발전 :



자료 : 우한시, 2014, 우한시 4대 구역 종합계획(武漢市四大板塊綜合規劃)

한국과의 교류 현황

- 2010년 총영사관이 설립되어 교류가 활발하며 화중(華中) 사범대학교 등지에 한국어과가 설립되는 등 한국에 관한 관심이 높은 편
 -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우한 모두에 한강이 있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며 ‘한강정(漢江情)’이라는 투자유치·교류행사가 열리기도 함
- LS전선, 조선내화, SK종합화학 등 우한의 대표 산업들과 관련된 제조기업이 진출
 - LS전선은 2011년 진출해 케이블을 생산 중이며 동평자동차가 제조하는 전기자동차에 고전압 하네스를 공급
 - SK종합화학은 2013년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과 협력해 에틸렌을 생산

3. 시안(西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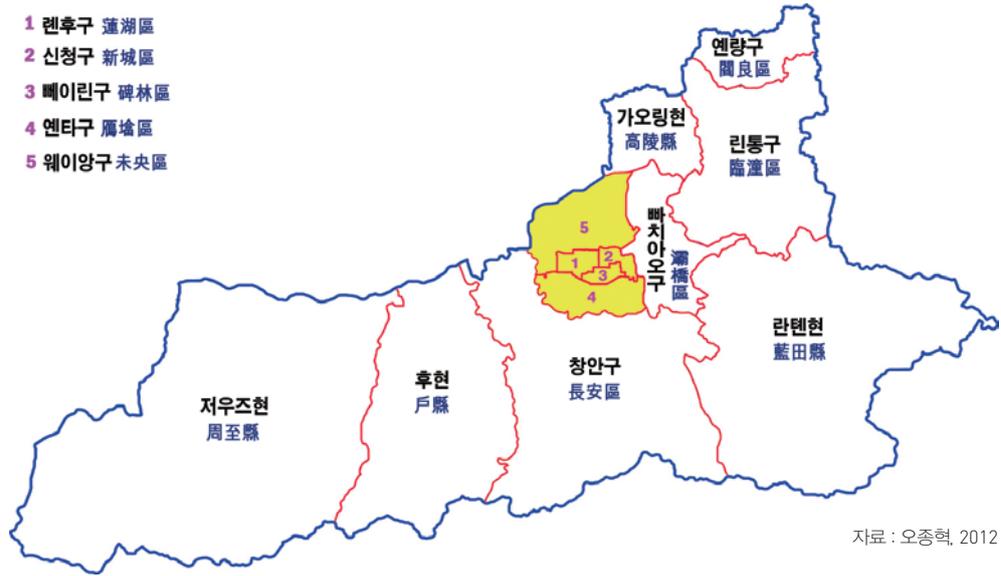
기본 현황

- 중국 서부지역으로 구분되나 지리적으로는 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하며, 실크로드의 출발점
 - 황허 유역 중부의 관중(關中) 분지에 위치하며, 과거 서양에 중국 문화를 전파했던 실크로드의 출발점
 - 총 12개 노선이 교차하는 서부 최대의 철도 허브이자 중국 10대 공항인 시안셴양(西安咸陽)국제공항 보유
- 옛 명칭은 창안(長安)으로 약 3,1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이며, 중국의 시저우(西周), 진(秦), 한(漢), 탕(唐) 등 13개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음
 - 유네스코(UNESCO) 지정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진시황릉(秦始皇陵)을 포함한 시대별 황제들의 능묘 등 다양한 역사·문화유산을 보유
 - 삼선건설(三線建設)의 전략적 요충지로 각종 국방·과학기술 산업단지과 R&D센터가 설치된 지역
- 9개 구와 4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시 전체 면적의 5%에 불과한 도심 5개구에 약 50%의 인구가 거주
 - 도심 : 신청구(新城區), 베이린구(碑林區), 렌후구(蓮湖區), 옌타구(雁塔區), 웨이양구(未央區)
 - 시안 도심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상업시설을 제외하고 시정부, 학교 등 일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

4 대약진시기 중소관계가 악화되고 미국의 베트남 참전 등으로 국방,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1964년 마오쩌둥이 전국을 1-3선으로 구분하였으며, 신규 산업시설을 내륙 쪽에 집중시킴. 이 시기 대기업과 연구단지 상당 부분이 내륙으로 이전하게 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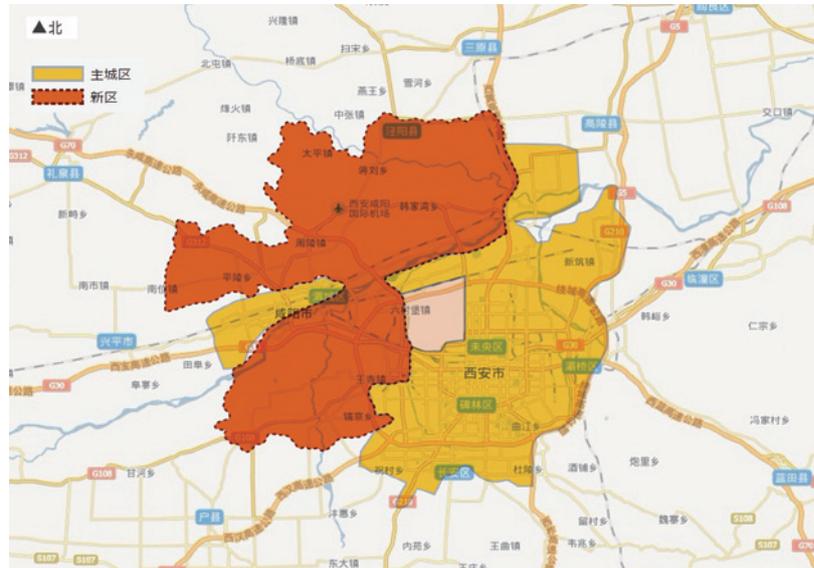
그림7 시안시 행정구역 구분

- 1 련후구 蓮湖區
- 2 신청구 新城區
- 3 베이린구 碑林區
- 4 옌타구 屬塔區
- 5 웨이양구 未央區



자료 : 오종혁, 2012

그림8 시안-셴양 도시통합 예상도



자료 : 오종혁, 2012

경제 현황

- 경제성장률이 최근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
 - 서부지역 주요 도시의 성장률은 중국 평균보다 최소 1.5%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으로, 2014년 시안의 GRDP 증가율은 9.9%를 기록
 - 서부지역에서는 충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편

- 주요 산업은 IT, 관광, 문화, 물류 등이며, 식품가공, 항공, 우주산업을 육성할 예정
 - 대표적으로 IT산업은 삼성전자의 유치로 인해서 집적회로(IC) 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, 그밖에 전자 부품소재, IT서비스, 사물인터넷 분야의 발전이 예상
 - 관광업은 실크로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, 문화산업은 대형 문화산업기지 건설 및 대기업육성, 물류는 전용 물류센터 건설과 기업 육성 추진
- 최근 IT, 자동차,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해외직접투자(FDI)가 증가하는 추세
 - IT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외에 ZTE가 R&D 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며, 자동차는 삼성SDI가 중국의 안칭기업과 협력하여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을 설립
 - 그밖에 존슨앤존슨(제약), SK(헬스케어) 등이 시안에 투자 진행 중

도시 발전 계획

- 주변 셴양시(咸阳市)와의 통합을 통해 1,000만 인구의 국제적인 대도시로의 발전을 추진
 - 2020년까지 시셴신구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시 공간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추진
 - 시셴신구는 2014년 1월 중국에서 7번째 국가급 신구로 비준받았으며, 앞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교통, 물류의 허브로의 발전을 추진
- 시셴신구는 크게 5개 신도시(신청)로 구분되며, 구역별로 발전 분야가 명시

표1 시셴신구 주요 발전 구역 및 분야

| 지역 | 면적(km ²) | 발전 분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콩강신청(空港新城) | 141 | 항공물류, 기체수리, 국제상거래, 서비스업 등 |
| 평둥신청(沔东新城) | 161 | 연구개발, 체육, 전시산업, 문화 관광산업 등 |
| 친한신청(秦漢新城) | 291(그 중 유적 보호구역 104km ²) | 역사문화 관광, 금융업, 도시농업 등 |
| 평시신청(丰西新城) | 143 | IT, 물류, 신소재, 바이오의약 등 신산업 |
| 징허신청(涇河新城) | 146 | 저탄소 산업, 첨단 제조업, 측량, 신에너지 산업 등 |

자료 : 현지 언론자료 종합

한국과의 교류 현황

-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기점으로 한국과 시안시 간의 경제 및 인적교류가 급증
 - 2012년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쉬 반도체 제조법인 투자를 진행하였으며, 이후 59개의 협력사가 동반 진출
 - 2015년 6월 기준 시안에는 250개의 한국기업과 교민 6,000명이 거주 중

4. 충칭(重庆)

기본 현황

- 중국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중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(8만 2,400km²)의 도시
 - 창강(长江) 상류에 위치하며, 대부분 산과 언덕으로 이뤄져 있어 '산의 도시(山城)'라 불림
 - 여름 날씨가 유독 더운 편으로 난창(南昌), 우한(武漢), 난징(南京)과 더불어 중국의 '4대 화로(火爐)'로 꼽힘.
 - 중국 8대 철도 허브이며, 독일 함부르크까지 가는 국제화물철도 노선을 보유
 - 내륙의 주요 공항 중 하나인 장베이 국제공항과 창강수운을 활용한 물류노선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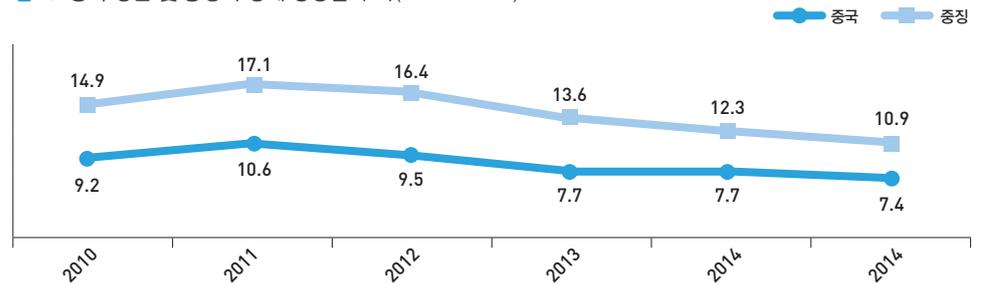
- 약 4,000년 전 고대 파국(巴國, 현재의 쓰촨성 일대)의 수도로 당시 '위저우(渝州)'라 불렸으며, 이후 남송(宋) 시기인 1189년에 충칭(重慶)으로 명명됨
 -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에는 쓰촨성 관할이었으나 1997년 직할시로 비준되면서 분리됨

- 내륙 유일의 직할시이며, 행정구역은 19개 구(市轄區), 15개 현(縣), 4개 소수민족 자치현(民族自治縣)으로 구성
 - 그 중 도심지역은 위중구(渝中区), 다두커우구(大渡口区), 장베이구(江北区), 샤팅바구(沙坪坝区), 지우룽포구(九龙坡区), 난안구(南岸区), 베이베이구(北碚区), 위베이구(渝北区), 바난구(巴南区) 등 9개 지역
 -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위중구가 충칭 정치, 경제, 문화, 관광의 중심이며, 그밖에 충칭 도심 북부와 서부에 HP, BASF,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외국기업이 진출

경제 현황

- 중국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 중 하나
 - 2002년 이후 12년째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중화학공업에서 IT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
 -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충칭은 전국 성, 시, 자치구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의 경제 성장 속도 기록
 - ※ 12차 5개년 기간 충칭시 성장률 예상치 12.6%(노수연 외, 2015)

그림10 중국 평균 및 충칭시 경제 성장률 추이(2009~2014)



자료 : CEIC Database

- 자동차, 화학 등 중공업 분야가 발전해 있으며, 최근 IT, 금융 산업을 적극 육성
 - 충칭은 중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도시 중 하나이며, 과거 1940~1950년대 수도권 공업기반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중화학공업이 발달
 -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노트북PC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IT기업을 대거 유치하면서 IT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였고, 오프쇼어센터와 미소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, 데이터센터 및 R&D센터 유치를 통한 IT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
 - IT산업 중 노트북PC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치한 것은 고용창출 효과가 컸기 때문(오종혁 외, 2014b)

- 2011년부터 충칭에 매년 1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직접투자(FDI)가 유입되고 있으며,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43개가 진출
 - IT기업의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, 화학, 물류, 부동산 등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
 - 포드, 현대자동차 등이 충칭에 승용차 제조공장을 추가 혹은 신규로 건설하고 있으며, 그 밖에 BASF, 굿맨(GoodMan), 베이록(Vailog), 워프홀딩스(Wharf Holdings) 등이 투자 중

도시 발전 계획

- 충칭 도심과 주변지역 간의 발전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‘충칭 5대 기능구(五大功能區)’ 건설을 계획
 - 5대 기능구는 도시기능핵심구(都市功能核心區), 도시기능확장구(都市功能擴展區), 도시발전신구(都市發展新區), 위둥베이생태함양발전구(渝東北生態涵養發展區), 위둥남생태보호발전구(渝東南生態保護發展區)로 규정
 - 각 기능구별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 자원분배 추진(예: 도시기능핵심구 - 서비스업 위주의 발전, 소비상권 확대 등)

그림11 충칭시 5대 기능구 범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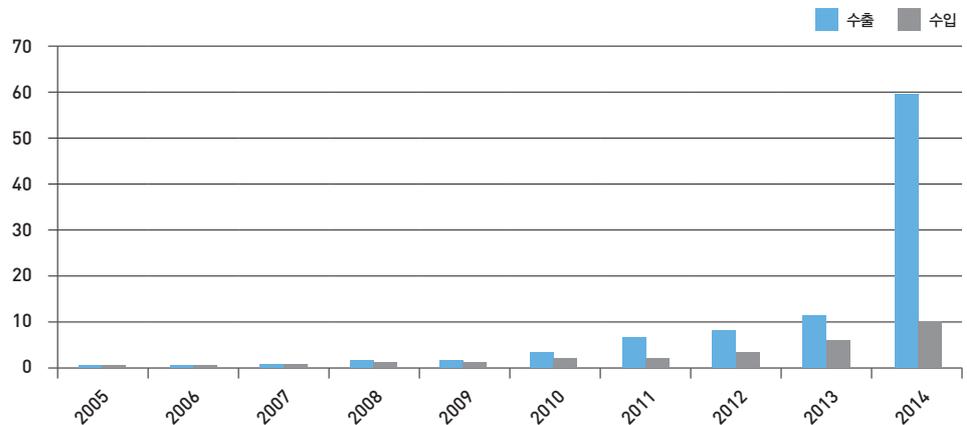
자료 : 오종혁 외, 2014

- 2014년 고정자산투자액이 전년 대비 18% 증가한 1조 3,223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, 공업, 부동산,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집중
 - 중국 전체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충칭은 여전히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 - 충칭시 공업 투자는 도시발전신구에 소재한 제조기업 중심으로 많았고, 부동산 투자는 도시기능확장구에 집중되었으며, 기초 인프라 투자는 수리, 환경 분야와 교통 분야에 집중

한국과의 교류 현황

- 2011년 이후 한국기업의 충칭 투자와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, 주로 자동차, IT, 유통, 물류 분야 기업이 진출한 상황
 - 한국의 대 충칭 수출액이 2014년 59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주요 수출품목은 리튬이온전지, 메모리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임
 - 한국의 대중 무역액에서 충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(2009년 0.1%→2013년 0.6%→2014년 2.4%)
 - 충칭에 투자한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, 한국타이어, 포스코, 풀무원, 롯데마트, SK하이닉스 등이 대표적임

그림12 한국-충칭 간 무역액 추이(2005~2014)



자료 : CEIC Database

- 2015년 6월 현대자동차가 충칭에 제5공장 착공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체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
 - 현대차는 충칭에 연간 생산 30만 대 승용차 제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, 관련 업체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
 - 현대차 관련 투자가 진행되면 교민 수도 2014년 600명에서 앞으로 1,5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참고 문헌

- 노수연 외, 2015,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2015년 중국 지역별 경제정책과 시사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중국 권역별·성별 기초자료 15-1
- 노수연·박진희, 2015, 중국 창강경제벨트(長江經濟帶) 조성계획의 핵심 사업 및 평가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오늘의 세계경제 15-008
- 박진희, 2012,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: 후베이성 우한시(湖北省 武漢市)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2-05
- 박진희, 2014,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: 허난성 정저우시(河南省 鄭州市)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4-04
- 오중혁, 2012,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: 산시성 시안시(陝西省 西安市)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2-10
- 오중혁 외, 2014a,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: 충칭시(重慶市)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4-03
- 오중혁 외, 2014b,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연구자료 14-01
- EIU, 2015, Access China: Chongqing
- EIU, 2015, Access China: Xi'an
- 中國經濟社會發展統計數據庫(<http://tongji.oversea.cnki.net/>; 중국 지역별 통계연감 수록)
- 충칭시통계정보망(<http://www.cqjtj.gov.cn>)
-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- CEIC Database(www.ceicdata.com)